

전현직 의원·원 지사 행보 '변수' 부상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54

제주시를 선거구 민주 경선 '리턴 매치' 양상
 원 지사는 중앙정치권 입지 강화 차원에서 심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원회룡 제주 지사의 행보 및 영향력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선거구 당내 경선은 전·현직 의원의 '리턴 매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제주시갑 선거구 후진 양성을 위해 불출마 용단을 내린 강창일 의원(4선)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제주지역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의 선거전략을 짜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낼 경우 민주당에 입지가 더욱 강화돼 총선 후 '보은'을 도모해 볼 수 있어 자신의 지역구 민주당 후보 당선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강 의원이 최소한 자신의 지역구는 후배에게 물려주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4·13총선에서 제주시를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오영훈 의원에게 석패한 김우남 전 의원도 이번 선거

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일 부승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금은 야인으로 후배를 키우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제주시를 선거구는 민주당이 지난 13일 경선지역으로 분류한 곳으로, 오 예비후보와 부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지지세력들과 함께 부 예비후보 경선승리에 올인할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의 '리턴 매치'가 전개될 전망이다.
 원회룡 제주지사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최고위원으로 합류한 만큼 통합당 후보 당선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 지사는 2016

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측근들의 원내진출을 지원했으나 전멸하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거구 A후보와 제주시 을 선거구 B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C후보는 원 지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자신의 선거 캠프사무소에 내걸고 '원회룡 도정과 함께 가겠다'는 문구도 집어 넣어 원 지사를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이중 2명은 예선에서 탈락하고 1명은 본선에서 패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4·15총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으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중책을 맡은 만큼 향후 중앙정치권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지역 총선승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군인이 2차 검사를 받기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서 '코로나19' 첫 양성 판정

휴가차 대구 다녀온 군인
 역학조사·동선 파악 나서

제주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 휴가차 대구광역시를 방문했다가 제주로 돌아온 20대 군인으로, 최종 확진자로 판정되는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21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군인 A(22)씨가 20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에 내원해 코로나19 1차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코로나19는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최종 확진자 판정이 내려진다.
 A씨는 제주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휴가를 위해 제주국제공항에서 고향인 대구를 방문 후 18일 오후 8시25분쯤 제주로 돌아왔

다. 이어 A씨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공항 인근 부대 앞 편의점을 들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날인 19일부터 A씨는 목이 간지럽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부대에서 격리조치 됐고, 20일 군부대 차량으로 한라병원을 방문해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현재 역학조사관을 출동시켜 A씨가 복무하고 있는 군부대 등에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체적인 동선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 검사 결과는 21일 새벽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파악된 동선으로는 일반시민과의 직접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가 탑승한 비행기와 택시, 편의점,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생존희생자·유족 중심 봉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심으로 봉행하기 위해 4·3기관·단체와 협업체 본격적인 추념식 봉행 준비에 나섰다 20일 밝혔다.
 특히 감동적인 연출 및 무대 구성 등을 위해 기획사 및 4·3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행사 프로그램 및 무대 연출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4·3 가치(평화, 인권, 화해, 상생)의 세대전승'을 주제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을 공모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슬로건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 '함께해요! 4·3정신, 느껴봐요! 평화인권'을 홍보아치, 현수막 등 각종 추념식 홍보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추념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념식 진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어려운 화훼농가를 도와요" 20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신종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행사와 졸업식 등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 돕기 '꽃 소비 활성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달에는 도내·외 인사 200여명 내외로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봉행집행위원회(위원장 실무부 부위

원장)를 구성하고, 도·행정시 관련 부서와 추념식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청 탐라홀에서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3월에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사와의 협업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고대로그

제주도, 공유재산 대장 일제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간의 불일치 자료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https://gis.jeu.go.kr/)'을 통해 공유재산 지리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토지대장과 맞지 않는 자료가 남아 있어 추진되는 것이다.
 토지대장과 맞지 않은 공유재산은 12만 필지 가운데 1만2570건이다.

이중 공유재산 대장에만 존재하는 자료는 5512건이고, 토지대장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7058건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공유재산 대장 일제정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태양광 발전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usolar.co.kr